

2025 KBS 10대 뉴스

1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순간이었다. KBS는 6월 24일(화) 제1회 KBS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를 열어 시청자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법안이 통과된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정했다. 11월부터 수신료 통합징수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된 KBS는 명품 대하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국민 감동 특집 대형 공연 등 고품격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보답할 계획이다.



2 AI 방송 원년 선포

K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2025년을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했다. AI 방송혁신 시대를 선도하고자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AI 방송혁신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통해 AI 분야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활용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AI방송혁신단을 창설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3 51기 신입사원 채용

KBS가 미래 방송 주역이 될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공사 재정 악화로 그동안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방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했지만,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로 재정에 숨통이 트이면서 3년 만에 공채 51기 신입사원 70명을 채용했다. 신입사원들은 새해부터 KBS의 변화를 이끌 주인공으로 맹활약할 예정이다.

4 조용필 공연 '대성황'

10월 6일(월) 방송된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가 압도적인 시청률로 추석 연휴 방송가를 평정했다. 전국 시청률 15.7%로 동 시간대 1위는 물론, 최고 시청률 18.2%를 찍는 기염을 토하며 '가왕'의 위엄을 유감없이 입증했다. "방송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 "조용필과 KBS, 다 전설이다." 등 시청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6 다큐 <인재전쟁> 뜨거운 반향

"오랜만에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가 50만 원을 쾌척하며 남긴 평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과 '의대에 미친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본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2부작이 공전의 반향을 불렀다. 12월 현재 유튜브에서 1, 2부 합산 조회 수 213만 회, 댓글 9천 개에 이른다.

7 K-콘텐츠 중심으로 '우뚛'

대한민국 대표 K-POP 유튜브 채널 <KBS Kpop>이 구독자 1천만 명을 돌파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우뚛 섰다.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 리스본과 도쿄까지 14개국 20회의 대장정을 통해 K-POP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했다.

9 APEC 정상회의 전 세계로

KBS가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주시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관방송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카메라 50여 대로 촬영한 영상을 KBS가 제작한 국제 신호를 통해 세계 16개 방송사에 차질 없이 송출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했다.

5 대하드라마 <문무> 기대감 폭발

대하드라마의 명가 KBS가 2026년 새 대하드라마 <문무(文武)>를 야심차게 선보인다. 약소국 신라가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당나라까지 넘어선 끝에 마침내 삼한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의 서사를 그릴 예정. 이현욱, 장혁, 김강우, 박성웅, 정웅인, 조성하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한껏 기대감을 높였다.



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유치

KBS가 10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세계공영방송(PBI) 총회에서 내년 서울총회를 유치하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국제적 위상을 입증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앞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내년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10 장수 프로그램이 쓴 '역사'

<가요무대> 40년, <아침마당> 1만 회, <TV쇼 진품명품> 30년, <영상앨범산> 1천 회, <불후의 명곡> 700회, <동행> 500회, 쿨FM 60년, <FM대행진> 50년, <불륨을 높여요> 30년...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KBS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은 바로 시청자와 청취자의 '사랑'이다.





AI 방송 시대 선도할 AI 챔피언

방송 미디어 산업이 AI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KBS의 AI 혁신을 선도할 「AI챔프」 73명이 탄생했다. KBS AI방송혁신단과 인재개발원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실시한 AI 교육을 통해서다.

용 가능한 실무 능력까지 익히도록 했다. 특히 교육 참가자를 '제작'과 '비제작'으로 나눠 교육함으로써, 방송 콘텐츠 기획 제작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강도 교육 통해 이론과 실무 섭렵

1차 교육은 10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매일 4시간씩 10일 동안 본사에서, 2차는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매일 8시간씩 인재개발원에서 강도 높은 합숙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탄생한 「AI챔프」는 방송기술 직종이 22명(30%)으로 가장 많고, PD 12명(16%), 기자 8명(11%), IT 6명(8%), 기획행정 6명(8%)이다. 또 촬영기자(4명), 영상제작(3명), 아나운서(2명)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참가했다.

비제작 분야 교육에 참여한 수신료운영부 조남주 사원은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수신료 민원 관련 정보와 업무 내용을 챗봇 형태로 구체화해 민원 응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작 교육에 참여한 드라마1 이호 팀장은 "AI 기술을 영상 연출에 접목해보며 다양한 영감을 얻었다. AI 기술을 드라마 제작 전반으로 확대해 수준 높은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섭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기술 발전 동향과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및 저작권 문제를 학습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자동화, 생성형 AI 제작 툴 실습을 통해 근무 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까지 익히도록 했다. 이들은 KBS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력 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챔프」는 앞으로 직무 중심의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안에 대응하는 상시 실행 조직으로 운영된다.

쿠바 청년이 전하는 K-POP 열기

12월 4일(목) KBS 라디오 스튜디오. 쿠바 대학생 카렌이 아이유의 'Love Wins All'을 유창한 한국어로 부르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쿠바 수교 1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했다. 제일 기대한 곳은 역시 KBS. K팝의 열혈 팬인 카렌과 나옴이는 방송 현장 체험에 이어 R국제방송 스페인어 유튜브 라이브 <K-POP 인터랙티브>에 출연했다. 카렌은 "과거 쿠바에서 촬영한 <생생정보통>에 출연한 인연이 있는데 KBS에 오게 되어 신기하고 반기웠다."며 웃었고,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나옴이는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 회원들은 "KBS 유튜브 채널을 모두 구독하고 있다."며 "한류 열풍이 뜨거운 쿠바에도 <뮤직뱅크 월드투어> 같은 공연이 찾아오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KBS Kpop' 유튜브 채널은 11월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메가 채널로 도약했다.

제30회 아시안텔레비전어워즈 허유원 아나운서 한국 대표 MC

11월 28일(금)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회 아시안텔레비전어워즈(ATA)에서 KBS 허유원 아나운서가 한국 대표 진행자로 활약했다. ATA는 아시아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아시아권 방송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KBS 허유원 아나운서와 태국의 방송인 루이 허세, 인도네시아 배우 로비 푸르바 등 각국을 대표하는 진행자 7명이 올해 공동 진행자로 발탁됐다. ATA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의 다양성과 협력을 상징하는 라인업"이라고 설명했다. 허유원 아나운서는 "KBS와 한국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KBS <전국투어콘서트> 감동의 무대

KBS <전국투어콘서트>가 8월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10월 26일 청주까지 열한 차례 공연을 마무리했다.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환호는 9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 밤 KBS 1TV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KBS 9개 지역총국이 모두 참여해 제작한 <전국투어콘서트>는 수준 높은 음악 공연 관람 기회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했다. 장사익, 최백호, 전영록, 윤종신, 알리, 임창정, 테이 등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고, 특히 25년 만에 재결합한 '시인과 촌장'의 공연엔 '감동적이다, KBS에 감사하다'는 등 호평이 이어졌다. KBS 지역정책실은 "앞으로도 고품격 음악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총국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 유튜브 조회수 1위 견인한 두 주역

esports KBS & 개그콘서트



KBS가 2025년 방송사 유튜브 채널 연간 조회수 1위에 등극했다. 2023년 3위, 2024년 2위에 이어 마침내 정상 고지를 밟은 것. 지난해보다 연간 조회수가 25%나 증가했다. 그동안 유튜브 세계의 강자로 군림해 온 MBC와 CJENM을 잇달아 제치며 올 한 해 KBS는 유튜브 채널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배경엔 KBS 유튜브 채널 점유율 상승을 이끈 두 '효자 채널'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관심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하는 게 저희 채널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시청 지속 시간을 0.1초라도 늘릴 수 있게끔 자막 색깔이나 음성 효과까지도 세심하게 조정해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채널 최강자 <esports KBS>

<esports KBS(이스포츠 크브스)>는 채널 이름에서 보듯 2019년 국내 방송사 최초로 e스포츠, 즉 게임 중계 채널로 문을 열었다. e스포츠를 필두로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다양한 종목을 놓고 겨루는 스포츠 예능 콘텐츠를 주로 선보였다.

그러다 2024년 파리올림픽 당시 '올림픽' 콘텐츠로 조회수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린 걸 계기로 변화를 꾀했다. 구독자의 90%에 육박하는 남성, 특히 1030 남성 시청층을 겨냥해 짧고 강렬한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올해 '군대'를 소재로 한 콘텐츠와 <1박 2일> 명장면 쇼츠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방송사 유튜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독보적인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 방송사 유튜브 채널 4위, '엔터테인먼트' 채널 부동의 1위다.

동영상은 올해 2월 공개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대한민국의 전쟁 첨단 무기"를 공개합니다> 편이 조회수 123만 회, 쇼츠는 10월에 공개한 <1박 2일 전설의 신입PD 몰래카메라> 편이 조회수 2,119만 회를 돌파하며 올해 최고 성적을 찍었다. 채널을 운영하는 KBS 디지털전략국 김승환 팀장은 "댓글 반응과 구독자들이 보여주는

'무삭제 + 숏폼' 콘텐츠로 띄어난 <개그콘서트>

올해 가장 무섭게 성장한 KBS 유튜브의 '신흥 강자'는 <개그콘서트>다. 9월 27일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 버튼'을 받았다. 단일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로는 역대 최단 기록이다.

3년 6개월의 공백을 깨고 2023년 11월 부활한 <개그콘서트>는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방송에 다 담지 못한 무삭제 풀버전 영상과 쇼츠로 올해 '대박'을 쳤다. 3월에 공개한 쇼츠 <2번 연속 통편집 당한 안영미 무삭제 풀버전>이 2,319만 회, 8월에 공개한 쇼츠 <악역배우가 우동사리 시켰을 때 어머니들 반응>이 2,003만 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방송사 유튜브 채널 순위 52위로 출발해 4월에 조회수가 폭증하면서 7위로 경풍 뛰어오른 뒤 줄곧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방송사 유튜브 채널 6위, '엔터테인먼트' 분야 2위다.

연출을 맡은 이재현 PD는 "신인 개그맨들을 전면에 내세워 캐릭터를 만들어갈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이었는데, 내년에도 신인들이 전면에서 돋보이는 가장 젊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첫째 목표"라며,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늘리고, 최근 좋은 반응을 얻은 <말자쇼>처럼 캐릭터를 잘 키워서 내보내는 스펀오프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KBS강태원복지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2년 설립돼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결연후원, 새학기 물품 지원, 자립 청년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을 이어온 KBS강태원복지재단은 이번 수상을 통해 미래세대 지원과 방송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370여 명의 KBS 직원이

기부에 참여해 매월 약 220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허진 사무국장은 "방송과 후원자, 협력 기관,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며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상 성병숙·설영범 성우

성우 성병숙과 설영범이 KBS 한민족방송이 주관한 '2025 KBS 라디오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12월 11일(목)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병숙 성우는 라디오문학관 <AKA 신숙자>, <등에 쓴 글자>와 KBS 무대 <금성목욕탕>, 설영범 성우는 KBS 무대 <오페라를 듣는 간병인>과 최고의 클럽 <스토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우 인생 40년 만에 처음 상을 받았다는 성병숙 성우는 수상소감에서 9년 동안 치매 연기를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설영범 성우는 "선배들이 앞에서 길을 내주며 끌어줬고, 후배들이 뒤에서 밀어주며 계속 도전하게 만든다."며 감격했다. 신인상은 성우 박준모와 주예진, 공로상은 정훈석 성우와 김웅종 전 KBS미디어 PD가 각각 받았다.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님아

어쩌다 천하제일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대군. 둘의 영혼이 바뀌면서 펼쳐지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로맨스가 시작된다. 가난한 병자들을 돕다 얼떨결에 의적이 돼 '홍길동'으로 불리는 여인 홍은조는 유유자적 탐정 놀이를 즐기며 살아가는 도월대군 이열에게 쫓긴다. 둘은 우연한 계기로 영혼이 뒤바뀌고,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새해와 함께 설렘을 몰고 올 KBS 2TV <은애하는 도적님아>가 1월 3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된다. 믿고 보는 사극 불패 배우 '남지현'이 홍은조 역을,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세로 떠오른 '문상민'이 도월대군 이열 역을 맡았다. 여기에 최원영, 김석훈, 하석진, 김정난, 서영희 등 탄탄한 배우진이 더해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월 16일(화) 공개된 예고편에선 밤에는 도적과 종사관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낮에는 한 폭의 봄 풍경 속 청춘 남녀로 변모한 홍은조와 이열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음을 훔쳐버린 도적 홍은조와 직진 멜로 눈빛을 빛내는 이열. 신분도, 살아온 삶도 천지 차이인 두 사람은 어떤 운명 속에 어떤 로맨스를 그려갈까. 엇갈린 관계 속에 펼쳐질 모험과 로맨스를 앞두고 시청자들은 "벌써 흥미진진하고 설렌다.", "두 배우의 케미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은애하는 도적님아>로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선 작가와 드라마스페셜 <우리들이 있었다>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함영걸 KBS PD가 호흡을 맞춰 권력과 신념, 사랑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서사를 섬세하고 세련된 화면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 KBS 1월 3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KBS 다큐 인사이드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가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퇴직 후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던 아랫집 할아버지 '김종도' 씨와 1살 때 이사 온 윗집 아기 '우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품. 종도 씨는 우리가 기고, 서고, 걷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며 일기로 남겼고, 늘 마당을 찾는 아이를 위해 미술·운동·농사 시간을 만들어 '맞춤형 어린이집'을 꾸렸다. 초등학교생이 될 우리와 이별을 앞두고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할아버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는 "노인 부부와 이웃집 꼬마의 공존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소통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KBS다큐 / www.kbs.co.kr <다큐 인사이드>



2025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부문 <2216편 추적보고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찾아 나선 KBS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보고서> 2부작이 2025년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부문을 수상했다. <2216편 추적보고서>는 베일에 쌓인 여객기의 마지막 비행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최초의 탐사보도로, 정부 조사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 광범위한 영상 확보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블랙박스 기록이 사라진 추락 직전의 4분 7초를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휴대전화 등 영상을 확보하고 관련자 인터뷰와 영상 측량 기법을 활용해 마지막 항공 궤적까지 추적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 KBS시사 / www.kbs.co.kr <시사기획 창>



2025 방송콘텐츠 대상 KBS 대기획 <트랜스 휴먼>



KBS 대기획 <트랜스 휴먼>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한 '2025 방송콘텐츠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화제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로봇과 AI가 고도화되는 시대, 인간 본성에 대해 고찰한 <트랜스 휴먼>은 1부 <사이보그>, 2부 <뇌 임플란트>, 3부 <유전자 혁명> 순으로 선보인 대형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다. 경이로운 의과학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인류'의 모습을 담아 화제를 모았고, 배경음악과 도입부 제작 등에 AI를 활용해 초현실적이면서 세련된 영상 연출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밀도 있게 탐구해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 KBS다큐 / www.kbs.co.kr <트랜스 휴먼>